대덕밸리, 가자! 코스닥으로

케이엘테크 · 해빛정보 · 케이맥 등 코스닥行 준비 한창

코스닥 등록 조건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덕밸리내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진출 준비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3~4년간의 꾸준한 연구개발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동안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LCD 재생 전문기업 케이엘테크(공동대표 김상호 · 이종규)는 내년 3월 본격적인 코스닥 예비심사작업을 거쳐 6월 중 코스닥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지난 5월 핸드폰 LCD모듈 생산공장을 준공하는 등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구축했으며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한창이다.

광학부품 제조기업 해빛정보(대표 박병선)도 내년 중으로 코스닥 '바늘구멍'을 무난히 뚫을 전망이다. 이 기업은 올들어 10월까지 2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총 260억원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어서 향후 코스닥 입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물질 성질 분석 전문기업 케이맥(대표 이중환) 역시 코스닥 입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기업은 주관사 선정을 끝마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예비심사를 거쳐 6월 이후 코스닥 등록을 마무리한다는 세부적인 시간계획까지 짜놓고 있다.

이밖에 뉴그리드테크놀로지(대표 이형모), 골프존(대표 김영찬), 한발(대표 백수곤) 등도 기업 재무상태와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경기와 실적을 고려해 늦어도 2006년 이내에는 코스닥에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한편, 대덕밸리에는 블루코드테크놀로지를 비롯해 트루윈테크놀로지, 아이티, 인바이오넷 등 총 9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다.

신제품 신기술

유콘시스템, 손으로 날리는 무인항공기 상용화

무인항공기 개발 전문기업인 유콘시스템(대표 최상근)은 최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와 성우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투척식 소형 무인항공기 '리모아이 006'을 개발, 출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연구개발은 지속되어 왔지만 투척식 무인항공기를 본격 상용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항공 선진국만이 실용화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도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개발이다.

이 제품은 기체에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어 원하는 임무를 프로그램하면 내부 작동원리에 의해 알아서 임무를 수행한다. 또 비행체와 지상의 조종사간 통신이 가능해 비행 중에도 비행지역, 고도, 속도, 긴급상황 등 비행모드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날개 길이 2.72m, 몸길이 1.55m, 무게 6kg로 작고 가벼워 별도의 활주로나 발사대가 필요 없다. 착륙시에도 별도의 기계적 도움 없이 미끄러지듯 착륙할 수 있고, 수직 형태의 착륙도 가능하다. 비행 준비시간은 대략 5분 정도. 충전식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모터를 사용해 최대 75km의 속도로 반경 10km 이내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회사측은 이 제품이 군수용은 물론 해양 적조감시, 유조선 누출, 산불 예방, 병해충 파악, 밀입국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